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

2022.4.29.목 (7:30~9:30)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문학)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발도르프학교에 와서 강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대안학교에 가서는 했어요. 만나서 반갑구요. 어떤 경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 학부모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종합판 인거죠(웃음). 학생들 손들어볼래요? 학부모님이 많으신 거죠? 선생님들도 계신가요? 한 시간 반에 걸쳐 한국교육 어떻게 보는지 말씀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은 한국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알고 계시죠? 함께 나눠보죠.

가장 놀란 것은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80%의 부모가 교사죠.(웃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징후예요. 늘 일상에서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내맡기는 게 옳은지, catastrophe 카타스트로페. 이건 사실상 파국, 파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교육이 과연 바뀔까 회의적이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대다수가 한국교육은 끝났다, 파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 상황에서는 대안교육이 나오기도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잖아요.

고등, 대학생 대상 강연과 신문칼럼에도 썼는데 보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이란 사회는 너무나 억압적이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길들여져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어른들을 믿지 말라(웃음). 그들을 믿어서는 여러분의 미래가 없다. 불행밖에 없다. 저는 확신해요. 한국의 어른들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어른들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지난 9월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다. 우리는 최근에 대선이 있었죠? 그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놀랐어요. 지난 독일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였겠어요? 앙겔라 메르켈, 이분이 16년간 했어요. 퇴임 무렵 지지도가 85%였다. 더 할 수도 있었겠죠.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정치적 쟁점은 '생태기후변화' 문제다. 전체 선거의 4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 한겁니다. 그 다음 코로나 대응 32%, 경제, 복지 문제 1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번 독일선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선거의 쟁점은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핵심적인 선거 이슈였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뿐만이 아니고 '미래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미래생명은 무엇이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지난 독일 총선의 핵심적인 쟁점은 '미래생명에 대한 책임'이었죠. 녹색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죠. 결국 독일 총선은 미래 선거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기도 싫겠지만(웃음) 대선을 돌아보면 악몽을 꾸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

봐야 합니다. 생태기후변화가 과연 선거의 쟁점으로 오른 적이 있나요? 지금 한국은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국가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고를 잘 안 해요. 독일 슈피겔 잡지를 보면 지구를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을 위성사진으로 계속 보여줘요. 최악의 지대는 어디겠어요? 생태지옥이 어디일 것 같은가요? 우리가 살고있는 여기다. 생태미래는 중국에서 결판이 난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 어떤 식문화를 가질지가 생태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보서는 서해에 맞닿고 있는 곳이 세계 최악의 생태지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들이 뿅뿅이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지대가 상해죠. 상해를 중심으로 반경 500km는 Todeszone, 죽음의 지대예요. 그런데 한반도가 500km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최악의 지대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뿜는 어마어마한 오염에 상해에서 온 죽음의 구름이 또 위에 겹치고 있어요. 끔찍한 생태조건에 있는데 이런 조건 속에 살 있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한국의 정치집단은 범죄 집단에 거의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관심 없는 자들이 왜 정치를 하냐 말이지요. 한국의 정치인들처럼 다수에 삶에 관여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무책임한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생태와 관련된 문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으로 대처한 나라는 독일이죠. 녹색당은 지난 8년 동안 집권했어요. 공동정부로서, 연합정부로 이번에 또 집권하고 있죠. 세 번째 집권을 하고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생태적인 세계관을 기본적 세계관으로 보면서 바뀌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색당을 만들어낸 기반이 된 세력은 바로 교사들이었습니다. 대개 1970년대 초반에 로만클럽에서 지구의 생태적 조건에 대해 경고가 나왔죠. 지금과 같이 자연생태계를 완전히 때려 부수는 이런 종류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발전을 하더라도 지속이 가능한 선까지만 하자는 말이 이때 나온 것이예요. 소위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때 나온 말이예요. 생태 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미 50년 전에 나온 거죠. 거기에 반응한 것이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나왔어요. 내가 가르치는 예쁜 우리 아이들, 내가 나서서 지킨다. 그래서 교사들이 주축으로 녹색당이 결성이 되었구요, 1980년대 초에 연방에 들어갔고 90년대에 집권을 하게 되요. 95년부터 2003년까지 두 팀을, 8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녹색당이 바꿔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세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일체의 책임의식이나 생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생태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경제적 문제나 전염병문제, 우크라이나전쟁, 국제적 갈등의 문제 등 다 시급한 문제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태기후변화 문제죠.

대체로 유럽에서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리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 22세기는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생명 대결정이 대체로 2050년 이후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될 것이다. 과학자들이 내린 경고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한국인들은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 이 문제를 풀 정당하나가 제대로 서지 못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Fanco Bifo Berardi)와 슬라보니아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요즘 제일 잘나가는 철학자들인데요, 프랑코 베라르디가 한국을 와보고 연구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현대 Nihilism 니히리즘(허무주의)에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허무주의가 있는데 가장 급진적인 형태다 한국의 허무주의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생태위기 속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물을 때, 베라르디의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우리 심성의 저변에는 허무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케 세라세라. 왜 우리 스스로가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조천호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나요? 전 기상청장이셨는데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지금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조천호 교수님처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kbs 이슈pick 쌤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더 비관적이다. 작년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세기 오지 않으니 80년도 안남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책은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30년 후면 지구 자체가 거주 불가능한 혹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조천호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최대한 안 쓰고 분리수거하고, 채식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게 보면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의사당을 장악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자기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을 만드는 거다. 녹색당 10% 정도 의회석을 차지한다면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5%, 15명. 그렇게 되면 생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법안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 한국 어른들을 믿지 마라. 미래세대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아이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가요?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전생태에 쳐놓고 끝없이 경쟁시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대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교육 지옥이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죠?

<르 몽드> 취재

- 교육 대 파탄
- 학생의 불행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죠. 왜 한국교육을 가장 집중적으로 취재했을까요?

피사(PISA)강국 세 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핀란드죠. 프랑스, 독일은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뒤쳐지는 거 아니야 하는 보수적 정치인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르 몽드>가 한국교육에 대해 특별 취재를 한 거예요. 와서 보고 이게 교육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생산해 내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독일도 왔어요.

독일은 공영방송 엔드라이에서 취재단을 보냈는데, 원래 교육특집이었는데 인권특집으로 내보냈어요. 와서 보고는 경악한 거예요. 이건 인권유린이자 학대다. 어떻게 이런 학대를 사회 전체가 용인하냐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어른들 노동도 8시간 이상 못 하게 하잖아요. 8시간 넘으면 인권 유린예요. 학습 노동이란 게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런 학습노동을 20시간씩 시키니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걸 버티낸 아이들 내면에서 얼마나 끔찍한 상처들이 자랄까. 또 시험이란 건 극단적 학대다. 왜냐면 시험이란 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하루에 한 과목 이상, 일주일에 두 과목 이상 못 보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독일 취재단이 와서 수능 시험보는 걸 본 거예요. 하루종일 시험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그다음에 교육지옥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교육도 경쟁이 있죠. 경쟁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교육에 지옥이 붙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이 유일해요. 교육이 조금 경쟁이 심하다 이 정도죠.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2017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4개국 대학생을 천명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에서 고등학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사활을 건 전장이었냐 함께 하는 광장이었냐. 한국은 전쟁터라고 답한 아이들이 81%, 미국 40% 중국이 21%, 일본이 의외죠 14%. 일본은 경쟁 안 시킨지 꽤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어요.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일본, 영어강사를 하는 친구가 그래요. 한국 아이들은 옆에 있는 아이와 경쟁을 하는데, 일본 아이들은 꿈을 놓고 추구를 한다, 옆 친구들은 서로 응원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76%가 함께 하는 광장이라는 거예요. 이 도표는 굉장히 심각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사회 병리성이 이 지표로 압축적으로 표현된다고 봐요. 여러분 대부분 80프로가 전쟁터야 라고 대답한 것에 동의하시나요?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야 라고 대답했다면 재난 생존자예요. 생존자 신드롬이 있어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게 아니다. 전쟁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걸 방해하죠. 대다수가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대선 과정에서 또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이것이 거의 한국의 문제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전쟁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 인간밖에 없어요. 딱 승자와 패자. 승자들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리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났어. 내가 SKY 나왔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얻어낸 결과야, 여기 누가 들어와. 지금 한국사회 의사들이 벌이는 형태를 보세요. OECD 나라 중 의사 수와 판검사 수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특권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상을 누리고 경제 보상 받나요. 자기들이 특권을 쌓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특혜에 대해 일말을 부끄러움이나 성찰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오만한 엘리트들의 국가가 된 거예요. 엘리트들이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코로나가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의 의료체제에 대해 너무나 공부 많이 했어요. 김윤 교수 너무나 훌륭한 분이예요. 서울의대 교수죠. 이분은 정말 정확한 말을 하고 있다. 의사들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대부분 말들은 이분의 말에 근거하고 있어요. 인구 천명 당 의사수, 한국은 2.4명이예요. 인구 천 명당 3명이 안돼요. OECD 평균이 3.4명. 우리 인구가 5천만이면 5만 명 부족한 거예요. 독일이 4.3명. 독일과 비교하면 10만명 부족, 간호사 수 과잉 의료가 계속 나오죠. 그것은 의사수 부족과 관련이 돼있어요. 그런데 의사 수를 못 늘리게 합니다. 어찌라는 거예요?(웃음)

대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우리 의료체제가 너무나 허약한걸 알았어요. 의료체제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역에 그렇게 목숨을 건거예요. 독일도 비슷했죠.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나 의료체계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이 너무나 떨어지니 의사 수를 혁명적으로 늘려라.

전체 의대 정원의 50%, 10만을 늘리겠다고 한 거예요. 독일 의사 협회에서도 대 환영했어요. 우리는 지금 과로사 직전이에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응당합니다. 저는 최소한 3만명 늘릴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3천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부가 너무나 잘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들이 난리가 난거예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 복을 집어던지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데모과정에서 발표한 성명서예요. 성명서를 읽어보고 정말로 쓰러질 뻔 했어요. 이 성명서는 정말로 귀한 역사서예요. 제가 보기엔 한국교육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찰을 하고 싶으십니까?

전교1등을 놓이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하는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르지만 추천에 의해 공공병원 의사가 된 자.

그걸 보면서 30년동안 애들 가르친 선생으로서 교육현장에 선 자로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슬펐어요. 어느 나라의 엘리트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 예의가 없고 이렇게 오만방자하냐. 한국의 교육은 실패가 아니예요. 이정도 되면 파탄 이에요. 한국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일수록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도 한국 교육의 희생자라고 봐요. 우리 교실이 이런 괴물을 기른 거예요.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교육에서 어떻게 성숙한 엘리트들이 자라겠어요. 대 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오만하고 미성숙한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들 또한 희생자죠.

독일 의사들은 옆에 있는 다른 의사들을 동료라고 본다. 켈 가까이 있는 의사가 과로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의사를 경쟁자, 적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교육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특히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길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다수가 패자죠. 이 교육 질서 안에서, 90프로가 패자다. 20세가 되기 전에 좌절감, 열등감, 절망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불행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교육이라고 부를수 있습니까? 아이들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김우창 교수(고려대), 백낙천교수는 (서울대) 학계의 어른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죠. 김우창 교수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란 사회는 정말 이상한 사회다.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서에서 조금 잘 적응했다는 아이들은 예외없이 오만하고 적응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모멸감에 평생 쌓여 살아갑니다. 제가 이 지표를 tvN에서 보여줬는데 다니엘 린데만에게 당신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다니엘은 셋 중에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 매일이 파티였어요. 우리 애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아무리 파티였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웃음)

여러분 다니엘 린데만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고등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오케스트라, 연극, 베를린필하모니, 1년 전에 예약하는 이 공연은 학생은 예약도 없고 공연비도 1/10밖에 안 받아요. 학창시절에 이런 걸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특권을 주는 거예요. 또 매일 여행 다니고, 연예하고. 15세 전후의 나이에 연예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경험, 이거야 말로 한 인간이 휴머니스트로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봐야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 3때 어떤 여자아이들을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인간이 귀하는 느낌을 처음 가졌어요. 그 느낌은 부모를 통해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초의 연예 감정을 통해 인간이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엄청나게 책을 읽습니다. 책 속에 푹 빠져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진한 감수성을 가진, 왕성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요런 아이들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 작품을 즐기고 많은 것을 보면서 체험하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책 속에 푹 빠져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걸 해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죽은 지식을 갖다 퍼붓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현재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어른들에 대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복하라, 저항하라, 비판하라. 분노하라(웃음) 제 지침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책임질 능력도 의사도 없다. 그래서 어른들을 깨우쳐줘야 한다.

<표>

한국교육의 현실

- 학생의 불행 :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르 몽드)
- 교육 지옥: 고등학교는 전쟁터”(KDI)
경쟁지상주의, 주입식교육, 학력계급사회, 승자독식사회, 교육 없는 학습, 사유없는 지식
- 교실의 파국 민주주의의 산실이나, 파시즘의 산실이나
- 엘리트의 미성숙 : 의사, 판사, 검사의 형태
- 대학의 죽음 : 낮은 학문수준, 취업률로 대학평가, 지식인의 죽음, 대학의 기업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교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배우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으십니까? 성숙한 민주주의자 아니면 잠재적인 파시스트? 이걸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한국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없는 것이예요.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교실은 민주주의자가 자랄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한국교육의 영혼은 도대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쟁의식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죠. 우수한 아이가 훨씬 나은 아이고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죠. 우리는 경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쟁이 자연스러운 것, 심지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대다수가 경쟁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보죠. 여러분 사실은 모든 교육의 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라는 걸 전제로 출발하죠. 왜냐면 실제로 거짓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실, 진리로 보지만 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쳐넣은 것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지배자들의 지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할 것이다. 졸업할 때쯤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완벽한 자기부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수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동양에서 학문을 뭐라고 부르나요? 서양에서는 사이언스(과학, 지식), 동양에서는 배울 학, 물을 문.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묻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실이야 라고 묻는 걸 배우는 것이죠. 모두가 거짓이라는 걸 깨우치는 것을 배우는 게 학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예요. 한국인들은 가장 이데올로기의 노예처럼 예측돼있어요. 잘못된 교육 때문이죠. 정답을 고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세계의 대입 시험비교 해봅시다.

기계가 채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부 꺼내는 교육인데 한국만 쳐넣는 교육이에요.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은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유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한국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달달 외우는 능력 뛰어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쓴 그런 명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들을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길러내는 것이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의 문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하라. 예를 들어 독일 아비투어 문제 보통 3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프랑크스대혁명에서 인권선언이 나왔다 이걸 외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권선언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걸 길어서 5쪽 정도 발췌해서 줍니다.

“ <논제> 근대사회의 가능성,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건이다. 이것을 읽고 근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라.” 그리고 3시간.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독서 속에서, 문학작품을 통해 자기가 보아왔던 근대라는 것과 진지하게 대면하고 써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한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인 지식을 가진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보죠.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국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서울대 안에서 모범생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서울대 안에서 제일 모범생에게 공부비법을 물었어요. 달달 외워서 토씨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적어내면 에이플러스.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무협지 1위.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학문 후진국인 거예요. 우리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본 27명. 한국교육이라는 것은 총체적 파탄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파탄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독일은 1970년대 교육개혁을 해요.

68혁명과 교육개혁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아도르노)

비판 교육
반권위주의 교육
과거청산 교육
공감 교육

독일에서는 히틀러 파시즘을 경험한 것, 인류 역사의 최악의 경험을 가져온 것이 독일인이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독가스로 죽였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 68혁명에서는 '과거를 청산하자' 라는 게 이슈였습니다. 68혁명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 운동은 그 나라가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미국은 백인의 억압으로부터 흑인의 해방, 68년에 흑인 해방운동을 하죠. 마틴루터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고 이것을 계기로 흑인해방운동이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소련의 제국적인 지배로부터 자유화. 프라하의 봄이라는 민주화 물결을 이루었죠. 프랑스의 68은 거대자본의 노동에 대한 보편적 억압, 자본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노동해방운동이죠. 독일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부터의 해방. 독일은 과거청산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68 이전에 독일은 지금 일본보다도 더 과거청산이 안 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청산이 안 된 사람이 수상이었었죠. 68이 터지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28살 여기자가 전당대회를 할 때 단상에 올라가 "나치새끼 꺼져!"라며 젊은 세대가 청산되지 않은 세대에게 뺨을 쳤습니다.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습니다.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정권. 근본적인 과거청산을 내세웠습니다.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가 물질적인 독일을 건국했다면 나는 정신적인 독일을 건국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바로 그 독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공감했던 것은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근본적인 대처를 세워야 한다. 인적, 과거 청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반복 될 수 있다.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을 끝 없는 경쟁의 정글로 봤다. 다윈의 세계관이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다.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인을 학대, 약탈하고 뭐가 잘못 되어 있었다. 핵심은 이 세상을 끝 없는 경쟁의 정글, 항상 세상을 우열로 나뉘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이것이 파시즘의 핵심적인 정신이다.

지금 어디가 떠올라요? 한국. 이게 파시즘의 논리입니다. 아이들의 형태는 파시스트. 권위주의적 성격이론 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아이들이 왜 파시스트에 가까운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에릭 프롬의 사회 심리학책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성격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성은 강자와 동일시, 약자혐오, 독일 파시스트들은 약자 공격, 학살, 동조 습성, 항상 다수에게 붙는다. 공격성, 폭력성, 흑백논리,

지금 한국 보세요. 거의 파시스트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로 부르는 건 대단히 잘 못 된 거예요.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예요. 전기 파시즘은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예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런 자들이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아 놨죠? 이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태도로서의 파시즘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강해져 있어요. 이것이 한국사회의 근원 문제예요. 이 근원 문제의 발원지는 교실입니다. 우린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상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파시스트의 권위주의적 심성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구요. 두 번째 아이들을

정치적 미숙한 아이로 보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에 대한 모독이죠. 독일에서는 초등학생 데모가 빈번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게 초등학생 데모입니다. 도시 마비가 오기 때문이죠.

저항권 교육 규정

독일은 연방에 교육부가 없다. 대부분 주에 있다. 히틀러 시대에 끔찍한 것을 겪어서 항상 저항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민주시민의 3대 능력

1. 권력의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2.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3.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히틀러 과거가 반복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을 심지어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하는 것 심각한 문제다. 교사들, 정치적 금치산자다.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기르느냐. 정치적 시민권자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의회에 640명 연방의회에 81명, 13%가 교사다. 직업군 중 2위다. 핀란드 헬싱키. 100명. 그중 교사 비율이 무려 20%. 국회를 구성하는 1위가 교사다. OECD 평균이 10%다. 한국의 여의도는 과거에 2명. 도종환, 강민정.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사란 직업은 대단한 직업이다. 어느 나라나 교사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거대한 집단이다. 우리는 55만 명. 미래를 예지하는 집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제기하는 집단이다. 교사는 어느 사회 집단 중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하면서 교사들의 정치적 기회를 완전히 없앴어요.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 회복해야 하고 아이들을 선봉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야 법률적 지위를 확보했어요. 18세 선거권 너무나 중요하죠. 젊은 사회가 정치적 사회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총리 공간에 가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제 유튜브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목요 대화. 30여분 정도.

첫째 대학입학 시험 없애라. 둘째 대학서열 없애라. 셋째 대학등록금 없애라.

총리 공간의 분위기는 교육전문가 20여분. 상당히 안 좋았죠. 유럽에서는 일상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고등학생 대학시험 90%다 붙습니다. 프랑스 80%가 붙고. 유럽에서 대학서열 있는 나라 없어요. 독일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2,3개 대학을 다닙니다. 아이들이 3,4번 학교를 옮기면서 정말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합니다.

등록금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어요. 독일 69년에 정권교체가 되었죠. 정치적인 이슈는 대학 등록금의 문제.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죠. 1970년대 교육개혁. 생활비를 주기 시작. 50년 되었어요. 대체로 매 월 120만원 정도. 기숙사비, 생활비, 책값으로 씁니다. 우리는 도서관 텅텅 비고, 아이들이 빚쟁이가 되어있어요. 한국 사회도 비로소 아주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 최고의 책임입니다. 한국사회의 위험.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깊이 감동했습니다. 능력주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미국 사회를 야만 사회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잘못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시험, 서열 없애라. 가장 기본적인 능력 시험만 봐라. 이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제가 시대정신을 조금 빨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상 대학금 예산이 법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버니 샌더스가 대학 부채 탕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받아, 정책연합을 해서 대학 무상교육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국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에게도 한국교육의 이상을 전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1.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광화문에서 만나야 한다. 이들을 바꾸는 어렵다. 백만명만 모이면 한국교육을 바꿀 수 있다. 이제 터무니없는 고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선에 와 있다고 본다.

2.저희 학교도 교수님의 시선에 동감합니다. 우리 학교에 해 주실 말씀은?

-대안학교는 이상적 학교 교육을 촉발하는 영감을 주는 곳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학교가 공교육을 위축시킨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구조에 집착하면 우울증 환자가 된다. 구조보다는 모델을 바꾸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상상력,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68개혁 중 상황주의자(situationalist) 모든 상황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유토피아로 살아라. 유토피아를 그리다가 우울증 환자로 산다. 저는 발도르프학교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유토피아를 확장하면서 그런 중심이 되길 바란다.

3. 아이들 관련 정책 큰 틀이 교육부, 여가부에서 말하는데 제도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교육의 문제, 여가부 문제. 독일 시스템을 보면 여성가족, 청소년부, 교육부는 없고 주 정부에 있고. 주 정부 교육부 장관 회의는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4.공교육 고등학교 1,2학년에 보내는 가족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향을 틀수 있는 방법은?

발도르프학교에 보내야겠다고 했을 때 나름의 결단을 했을 텐데 새로운 가능성을 정책안에서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의 교육으로는 안되겠다라는.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교육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 교실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될까에 대해 회의적인 교육학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조직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조직화하고 구조화해서 거대한 교육혁명의 흐름으로 끌어낼지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 자리가 자체가 거대한 교육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본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Seoul free Waldorf school

이 강의록은 국내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도용 및 전제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